

KBS가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 ✓ 신뢰 받는 저널리즘
- ✓ 젊고 효율적인 조직
- ✓ 투명하고 열린 KBS
- ✓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

신뢰도 점진적 회복

하반기 200여 명 채용

일 중심 젊은 조직

”

취임 5개월, KBS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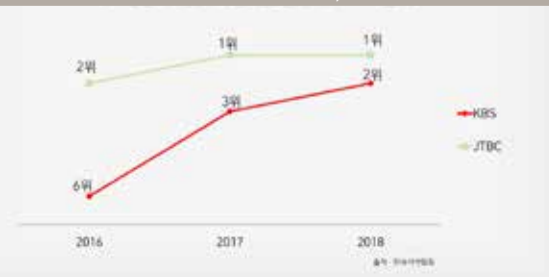
“취재·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외주제작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 개선하겠습니다”, “젊은 KBS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취임식에서 양승동 KBS 사장이 했던 약속이다. 새 체제 출범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KBS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5개월 KBS는 성역 없는 보도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점차 회복해 나가고 비일반직의 일반직 전환, 독립제작사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직급 체계 개선을 통해 상위 직급을 축소하고 하반기 2백여 명을 새로 채용해 조직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8월 29일 열린 'KBS 혁신 중간보고 및 2018 가을 새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양승동 사장은 이 같은 KBS 개혁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성역 없는 취재·제작 자율성 보장으로 신뢰 회복



양승동 사장은 “사장 선임 당시 최우선 과제로 신뢰도 1위, KBS 저널리즘 회복을 약속드렸다”며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기자들이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에서 KBS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위에 올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5개월간 KBS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양승동 사장은 “요즘 KBS 뉴스는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벌이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외를 두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며 “새롭게 부활한 탐사보도부에서도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KBS는 국장 임명동의투표, 편성위원회 등 취재 및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저널리즘 토크쇼 J>, <사사건건>, <사사본부>, <김기자의 눈> 등 신설 프로그램을 통해 팩트 체크와 미디어비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면 이어서)

기자들이 신뢰하는 언론매체, KBS 순위





KBS 제29기 시청자위원

KBS의 변화, 당신과 함께합니다

상생하는 KBS



내부 구성원 차별 철폐·독립제작사와의 상생

양승동 사장은 취임 당시 “새로운 KBS는 상생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KBS는 지난 8월 23일, 사내 비일반직 직원 250여 명을 올 연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양승동 사장은 “내부 구성원 사이에 차별을 철폐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작가와 자료조사원도 표준계약을 작성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파견 및 용역 등 800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독립제작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외주제작사’로 불리던 명칭을 ‘독립제작사’로 바꾸고 기본제작비 인상, 수익금·협찬금·저작권 배분 비율 조정, 연간 10억 규모의 독립 PD 창작지원금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방송사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도 마련했다. 또한 KBS는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설립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젊고 효율적인 KBS

하반기 신입사원 대규모 채용 예정... 상위 직급은 축소

‘KBS 방안 경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당장 ‘KBS는 상위 직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월 상위 직급 축소를 위해 관리직급과 1직급 승진을 유보했다. 또, 향후 책임자-실무자-전문가 그룹으로 직급체계를 단순화해서 관료적이고 경직된 현재 시스템을 일 중심의 유연한 구조로 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신입사원 채용은 대폭 확대한다. KBS는 올 하반기 지난 해의 2배인 2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중 1/3은 지역국에 배치한다. 장애인 채용 역시 크게 확대해 3년 내로 정부 기준 고시를 넘는 50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모바일 인재도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이처럼 폭넓은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국 활성화, 주 52시간 근로 시대에 대비함과 동시에 KBS를 더욱 효율적이고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KBS는 앞으로 5년간 1,300여 명의 고임금자들이 자연 퇴직하게 된다.

투명하고 열린 KBS



달라진 시청자위원회·시청자권익센터 신설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KBS의 노력도 속도를 낸다. 먼저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달라졌다. 과거 시청자위원회는 사실상 사장이 선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 29기 시청자위원회 선정에는 부문별 편성위원회의 평직원이 참여했고 시청자위원들의 성별·세대별·분야별 다양성을 강화했다. 대학생 최초로 시청자위원에 선발된 이서정 씨(27세)는 “그동안 방송을 보면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대학생들의 의견을 많

이 수렴해서 KBS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BS 시청자권익센터’도 새롭게 선보였다. 시청자들이 KBS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KBS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청원’이 가능한데, 양승동 사장은 “청원 동참자가 천 명을 넘으면 관련 책임자가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KBS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공동으로 시민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등 더 열린 KBS로 시청자들과 함께한다.

KBS 혁신 중간 보고회 주요 발언

17년차 음악감독 엄은영 음향디자이너실

“지난주 일반직 전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 감격스럽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혹 잘못될까봐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수 십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웠고 문턱에 서 좌절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KBS 사장이 직접 사인한 합의에까지 이른 건 처음이기 저와 동료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은 이전과 확실히 다릅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교수 29기 시청자위원장

“새롭게 구성된 29기 시청자위원회는 국민들이 지불하는 수신료의 의미를 살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가칭 ‘성찰과연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날 KBS의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우선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18개 지역국 시청자위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목소리를 여의도에 전달하고 전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KBS 가을 개편 | 신규 프로그램

이번엔 시청층 확대와 소통이다!

KBS는 9월 가을 프로그램 개편으로 시청자 곁에 한 발 더 다가간다.

핵심은 시청층 확대와 소통. 지난 6월 <저널리즘 토크쇼 J>, <사사건건>, <엄경철의 심야토론>을 통해 저널리즘 회복을 꾀했다면, 이번에는 시청자 참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대 시청자와 만난다.

현재 KBS 1TV의 평균 시청 연령은 58세(닐슨코리아/수도권 기준), 2TV는 50세로 높다.



오늘밤 LIVE
TONIGHT - KIM JEDONG
김제동

“오늘보다 내일 더 와닿는 이슈를 다룰 것이다.”

이지운 PD

<오늘밤 김제동>

방송 전부터 논란과 화제를 몰고 왔던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은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시대와 호흡하는 시사, 젊은 시청자들이 즐기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 선보인다는 점이다. 하루가 끝나기 전, 기억해야 할 이슈들을 풍부한 맥락과 해석을 담아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늘밤 김제동>은 시청자와의 간격도 줄였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myK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한다. 시청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내용을 방송에도 반영하는 등 ‘같이 보는 시사 토크쇼’를 시도한다. 김제동은 2009년 <스타골든벨>를 마지막으로 9년 만에 다시 KBS에서 MC를 맡았다. 그는 “자세 잡지 않고 무게 잡지 않겠다”, “시청자와 함께 쓰는 일기장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며 시청자와 더욱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토크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루의 마무리를 <오늘밤 김제동>과 함께 하는 건 어떨까?

▶ 첫 방송 9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30분, 1TV



10대들의
댄스 배틀
댄싱
하이
TEEN

“10대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성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다.”

이승건 PD

<댄싱하이>

최고의 10대 춤꾼을 가리는 댄스 배틀 예능 프로그램 <댄싱하이>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KBS가 본격적으로 10대를 겨냥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댄싱하이>는 웃음-순발력-케미까지 모두 갖춘 베테랑 방송인 정형돈이 MC로 나선다. 방송 전부터 화려한 댄스코치 라인업을 발표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아이돌 출신으로는 국내 정상급 댄싱머신 이기광, 호야, 이승훈이 일찌감치 댄스코치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가대표급’ 전문 춤꾼들도 가세했다. 선미의 ‘가시나’, 트와이스의 ‘TT’ 등을 작업했던 스타 안무가 리아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도깨비 난장’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국가대표 안무가팀 저스트절크(JustJerk)도 가세한다. <댄싱하이> 제작진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10대들의 성장과 열정을 진솔하게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 방송 9월 7일 금요일 밤 11시, 2TV



유일한 당신과 무한한 이야기
대화의 희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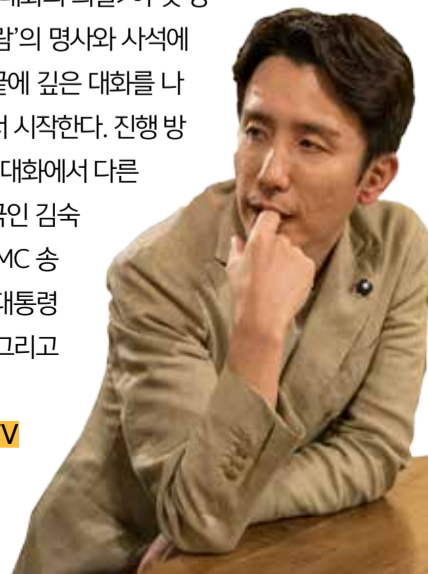
“사석에서 말문을 나누는 원(One)-게스트 토크쇼다.”

신수정 PD

<대화의 희열>

사라졌던 원(one)-게스트 토크쇼의 명맥을 이어갈 새로운 감각의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이 첫 방송을 준비 중이다. MC 유희열이 이끄는 <대화의 희열>은 시대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명사와 사석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콘셉트.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초대해, 하루 끝에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들의 토크는 스튜디오가 아닌 게스트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시작한다. 진행 방식도 새롭다. 정해져 있는 방송식 문답이 아닌, 사석 모임인 듯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대화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색다른 묘미를 시청자에게 선사한다. 첫 게스트 희극인 김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표창원,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 국민 MC 송해 등의 출연이 예고됐다. 유희열과 함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패널로는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당했던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호기심 많은 소설가 김종혁, 그리고 <비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준 다니엘이 함께 한다. (4면 이어서)

▶ 첫 방송 9월 8일 토요일 밤 10시 45분, 2TV



KBS 가을 개편 | 신규 프로그램

이번엔 시청층 확대와 소통이다!

<회사가기싫어>

“회사 가기 싫은 직장인의
공감스토리, 예능다큐다.”
이선희예능PD X 조나은 다큐PD



<회사가기싫어>는 직장인들의 팍팍한 생활에 한줄기 공감 웃음을 선사한다. 예능과 다큐의 조합, 오피스 모큐멘터리*를 내세우는 <회사가기싫어>는 오늘날 직장인들이 겪는 회사 내 부조리와 답답함을 가상의 한 중소기업 영업기획 부를 관찰하는 가상의 다큐 형식으로 제작됐다. '회사가기싫어' 편, '시간 전쟁' 편 등 각 편당 에피소드에 리얼함과 재미가 시트콤같이 펼쳐진다. 모든 에피소드는 실제 인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연극계에서 진짜가 굶은 배우들이 위트 있게 표현해냈다. 특히 모바일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와 제휴해 수집한 내용들은 실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 정보와 직장 생활 팁은 재미를 넘어 유익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 방송 9월 12일 수요일 밤 11시 10분, 2TV

*모큐멘터리(Mockumentary)

영화와 TV 프로그램 장르의 하나로, 마치 허구의 상황이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다큐멘터리

<볼 빨간 당신>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인생에
가입해보는 것이다!”
김성민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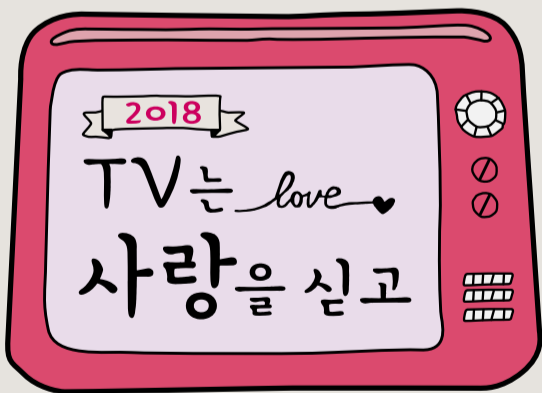


'내 부모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만약 부모가 자식에 쏟아 부었던 열정을 이젠 오롯이 본인 인생에 쏟고 자식이 옆에서 도와드려본다면 어떨까?'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애정 어린 호기심이 프로그램으로 탄생했다. 부모와 자식 간 관찰 예능 <볼 빨간 당신>은 '자식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혹은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할까 봐...' 이런저런 소심함으로 자식들에게는 선뜻 얘기 꺼내지 못했던 부모님 마음속 작은 꿈들을 자식들의 뒷바라지로 조금씩 이뤄가는 과정을 정감 가득 진솔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스튜디오 MC로는 유쾌한 두 국민언니 이영자, 홍진경을 비롯해 이 둘 사이를 오가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오상진이 맡았다. <볼 빨간 당신> 제작진은 “가족들의 리얼한 일상의 민낯과 부모-자식 간의 이야기가 주는 공감과 웃음,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따뜻함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세대 간 각자의 목소리를 관찰하는 <볼 빨간 당신>은 부모와 자식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시청자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방송 9월 11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2TV

<2018 TV는 사랑을 싣고>

“주인공과 함께 추억의 공간을 직접 찾아간다.”
최형준 PD



최고 시청률 47%,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레전드 프로그램이 새롭게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시청자들을 두근거리게 했던 '추억 찾기'는 스튜디오를 벗어나 출연자와 입담꾼 김용만, 윤정수 두 MC가 현장을 뛰며 사연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선다. 기존의 <TV는 사랑을 싣고>는 당사자가 아닌 리포터가 사연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추적 과정과 재연 화면을 보여 재미를 부각시켰던 반면, 새롭게 제작되는 <2018 TV는 사랑을 싣고>는 사람을 찾는 일이 우스운 일이 되어버린 현재의 흐름에 맞춰 추적 과정을 줄이고 '당사자의 의미 있는 만남'에 초점을 맞췄다.

▶첫 방송 9월 28일 금요일 밤 11시 10분, 2TV

<퀴즈방>



“실시간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TV가 가야 할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
조영중 PD

TV를 보면서 모바일로 퀴즈 풀고 상금을 받는다! 실시간 라이브 퀴즈쇼 챔라이브와 KBS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시작된 라이브 퀴즈 프로그램 <퀴즈방>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1,000만 원 상금을 향한 도전에 동참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TV를 시청하는 데서 벗어나 시청자가 직접 TV를 보며, 모바일 앱에 접속해 퀴즈 풀이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퀴즈방>은 TV에만 공개되는 사진 힌트 찬스 등을 통해 기존 챔라이브 유저들을 TV로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제작진은 여기에 톡톡 튀는 알짜 정보도 담는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퀴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보다 친절한 정보와 다채로운 이미지를 통해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MC는 서경석이 맡았다.

▶첫 방송 9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TV

취재기



“지금까지 평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평양에서 뉴스 생방송이 가능할까?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남북교류협력단이 천착한 주제는 바로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라이브 방송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재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막연한 상황이었다.

AP의 평양 지국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남북교류협력단은 평양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서방 언론사이자 텔레비전 방송인 'APTN'을 떠올렸다. AP 홈페이지를 통해 평양에서 위성 연결을 한 뉴스를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 평양-서울 뉴스 생방송이 기술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었지만 AP가 우리의 제안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이 미지수였지만 '어쩌면 평양 생방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숙소는 양각도 호텔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연락을 받았을 때 KBS 남북교류협력단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평양에 있는 AP의 송출 장소는 두 군데로, 한 곳은 김일성 광장이고 또 다른 장소는 바로 양각도 호텔이다. 선수단 및 취재진의 숙소가 양각도 호텔이 아닌 고려 호텔이었다면 생방송 연결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평양에서 KBS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김일

성 광장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숙소가 양각도 호텔로 결정되자 KBS 취재진은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평양으로 떠났다.

AP를 이용하신다구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평양 도착 다음날 조선중앙텔레비죤 관계자들과 만났다. KBS와의 향후 협력 관계 등을 주제로 이야기한 뒤, 평양 생방송 계획을 알렸다. KBS 취재진은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AP 대신 조선중앙텔레비죤망을 사용하라고 제안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경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뉴스 생방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예상보다 명쾌하게 위성 생방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유소년축구를 철저하게 준비한 남북교류협력단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긴장 속 6분간의 연결... 평양에서의 작은 기적

위성 생방송 연결은 9시 뉴스 한 시간 전해야 확정되었다. 마침 7시부터 환영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KBS팀은 마침 007 작전을 하듯 한 두 명씩 식당에서 빠져나와 저녁 8시부터 방송 장소에서 AP직원들의 협조를 받으며 방송을 준비했다. 카메라와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KBS 기술진이 여러 단자를 꽂은 뒤 위성이 열리자 서울 현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은 평양, 앵커의 목소리는 서울.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 번의 예행연습 후 본 방송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방송을 진행했지

만 이정도로 떨린 것은 처음이었다. 평양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6분간의 방송 내용을 모두 전한 뒤 “지금까지 평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방송을 마치자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다. 12명의 KBS 취재팀과 중계팀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낸 평양에서의 작은 기적이었다. 이번 생방송 연결은 평양 현지에서 KBS와 APTN의 정식 계약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위성 생방송을 연결하는 방식과 똑같았다. 위성 사용료나 기술적인 비용 모두 APTN에 지불했다. 북측에 현금이 오고 간 것은 전혀 없었다.



한성운 기자 스포츠취재부

10년 만에 이루어진 의미있는 순간

KBS의 평양 생방송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 두 번의 방송으로 남북 방송 교류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영화 '스모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찍은 사진이 모였을 때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듯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남북간의 차이를 좁혀나갈 때 방송 교류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선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을 방영한 적이 있다. 북측에서 서방 영화를 많이 방영하게 되면 '스모크'를 추천하고 싶다.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막연했던 2018년 8월의 평양 생방송을 만들어낸 남북교류협력단 및 평양 취재진의 이야기와 함께.

쉽 없던 30시간, 태풍 '솔릭' 추적기



김덕훈 기자 사회2부

'태풍 추적팀' 이걸 왜 하죠?

태풍 '솔릭'이 상륙한다한다. '태풍 추적팀'을 만들어 대응하자고 한다. 모든 '총'은 '총 맞는 자'의 반발심을 동반한다. 왜 태풍을 쫓아가며 중계해야 하지? 시청자에게는 '태풍을 조

심하라'면서 우리는 태풍을 쫓아가며 취재한다니! 이윤배 반적이다. 혹, '태풍을 장난처럼 다룬다'며 욕을 먹지는 않을까? 명분이 중요했다. 고심 끝에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를 취재팀이 먼저 이동하며, 주민들에게 피해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재 목적을 정했다. 취재진 이름도 '추적팀'에서 '이동취재팀'으로 바뀌었다.

변산, 목포, 함평, 단양... 쉽 없던 30시간

태풍 솔릭의 한반도 예상 상륙 지점은 8월 23일 밤 충청남도 서해안이었다. 취재진은 두 팀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

다. 1팀은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로, 2팀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태풍을 맞기로 했다. 23일 아침 변산 앞 바다, 태풍이 곧 지나갈 곳 치고는 고요했다. 태풍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경로도 동쪽으로 더 휘어 충남이 아니라 전남으로 상륙한다고 한다. '곧 방송 시작인데?' 헬레벌떡 목포로 내려갔다. 목포 북항에 도착하니 이미 폭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람에 안전모가 날아가고 장화에 들어간 빗물은 발목까지 찼다. 오후 3시쯤이었다. 그렇게 첫 중계를 탔다. 한 시간마다 장소 옮기기를 반복했다. 목포 북항, 목포 해양대, 다시 목포 북항, 전남 함평, 충북 단양으로의 밤샘 이동과 또 생중계... 방송은 24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태풍 추적도 좋지만..., 안전부터!

이동취재팀의 중계가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한 평이다. 우려했던 것처럼 '왜 위험하게 태풍을 따라가며 취재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에서 전북 부안, 전남 목포



와 함평, 충북 단양까지 취재 1팀이 2박 3일간 이동한 거리는 1,200km가 넘는다. 태풍 중계를 2팀에 넘긴 밤 11시, 1팀은 태풍 예상 경로를 따라 밤샘 이동해야 했다. 만 하루 이상 실 수 없었다. 하지만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었지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의 기자로서 역할을 다 한 취재였다 자평해본다. 물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태풍 추적에는 더 많은 취재팀, 더 짧은 이동거리, 더 여유 있는 중계 간격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방송 후 회사에 보고했다.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넘어서 좀 더 정밀하고 안전한 취재가 됐으면 싶다.

VR 콘텐츠로 오싹하게 즐기는 미스터리 공포 <도시전설>

하나의 콘텐츠를 TV 방송,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에 맞춰 제작해 매체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크로스 미디어'. 이 크로스 미디어 형식에 KBS 새 파일럿 예능 <도시전설>이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요즈음~ 공포' 프로그램 <도시전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상상력, 출연자들은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움과 가상 세계에 떨어졌다는 몰입감 속에 단서들을 추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공포와 추리 예능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대한민국의 실제 미스터리를 밝히는 것이 큰 목적인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라인이 있는 미스터리라는 점이 시청자를 더 오싹하게 만든다. <도시전설>은 과연 어떤 도시의 어떤 도시전설을 담게 될까? 1부에서는 걸그룹 '러블리즈'의 지수, 지애, 수정, 예인이 출연하고, 2부에서는 걸그룹 '우주소녀'의 여름, 연정, 수빈, 다영이 출연해 추리에 도전한다.

VR 콘텐츠라서, 더욱 생생해! 무서워!

<도시전설>이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방송과 VR, 게임의 결합으로 제작된 크로스 미디어 형식이라는 점이다. TV 방송으로는 60분 분량의 2부작으로 제작돼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모바일 VR 콘텐츠는 2분 분량, 12편으로 제작된다. VR 콘텐

츠는 2D의 영상의 아닌 360° 화면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핸드폰을 움직여 가며 더욱 실감 나게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바일로만 시청 가능한 VR 콘텐츠는 myK와 유튜브 KBS 예능 공식 계정을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도시전설>의 탄생 비화

크로스 미디어 제작에 대한 고민은 2년 전 젊은 PD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방송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도시전설>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영상제작국과 콘텐츠특수영상부, 신사업기획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됐다. <도시전설>에는 MC가 없다. 걸그룹들은 단순하게 프로그램 패널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걸그룹 멤버들에게 각각 1인칭 시점을 전달할 수 있는 개인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주인공인 방송' 그림으로써 '몰입감을 높이는 방송'이 바로 <도시전설>이다.

▶1부 9월 9일, 2부 9월 16일 일요일 밤 11시 30분, 2TV

제 11기 KBS 이사회 출범

성명	약력	성명	약력	성명	약력
 강형철	現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前 한국방송학회 회장	 김태일	現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대한정치학회 회장	 조용환	現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경달	現 네오터치포인트 대표이사 前 네이버 동영상서비스실장	 문건영	現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前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천영식	現 계명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초빙교수 前 문화일보 부장
 김상근	現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박옥희	現 한국여성재단 이사 前 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황우섭	現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前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근	前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서재석	現 나사렛대학교 초빙교수 前 KBS 아트비전 대표이사		

○ *지난 9월 5일 대통령 임명장 전수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신임 KBS 이사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는 9월 7일 열린다.

KBS 1TV 로고가 확 바뀝니다.

KBS 1 슬로건

한국인의
중심채널

KBS 1 채널 로고 가로형

KBS1

KBS 1 채널 로고 세로형

KBS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 되겠습니다!”

KBS 1TV가 2049, 3059 세대를 겨냥해 새롭게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사용해 오던 1TV 채널 로고가 확 달라졌다. ‘세상을 향해 열린 창=열린 채널=1TV’라는 의미를 담아 ‘창’의 모습을 본뜨다. ‘세상을 비추는 창’, ‘세상을 편견 없이 담아내는 창’ 그리고 ‘세상으로 통하는 열린 문’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 1TV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확장할 수 있다. 앞으로 1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과 스포트 등에 새로운 디자인 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1TV의 슬로건 ‘한국인의 중심채널’도 고궁 담의 패턴을 모티브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2TV는 이미 지난 2016년 9월부터 웃음과 미소를 상징하는 동그란 이미지를 사용하며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2TV의 정체성을 홍보 중이다. 올 연말까지는 프로그램별 개성을 포함할 수 있는 구성으로 1, 2TV 연령고지를 변경할 예정이다.

KBS 아트비전, 폭염 속 촬영현장에 커피 지원



KBS 아트비전이 폭염 속 고생하는 촬영현장 스태프 및 출연자들에게 시원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트비전은 지난 7월부터 월화 드라마 <러블리 호러블리>, 수목 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 <오늘의 탐정>,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 <아름다운 내편>과 <유희열의 스케치북>, <열린음악회-세종대왕 즉위 600년> 등의 프로그램 촬영 세트장 및 현장에 커피차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KBS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번달까지 진행한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45회 한국방송대상 KBS 수상 내역

상	부문	작품명
작품상	생활정보(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다큐멘터리(TV)	2017 KBS 대기획 UHD 다큐멘터리 <순례> 4부작
	다큐멘터리(라디오)	운동주 탄생 100주년 <시인의 100년, 운동주를 노래하다>
	중단편드라마부문	2TV 월화 드라마 <쌈, 마이웨이>
개인상	보도기자상	이재석 <파업뉴스>, KBS <뉴스 9>
	카메라기자상	조용호 <뉴스9> 블랙박스에 찍힌 세월호 사고 순간
	조명상	이경일 <천상의 컬렉션>, <콘서트 7080> 등
	음악상	이유미 KBS 대기획 UHD 다큐멘터리 <순례>
	내레이션상	이규원 <인간극장> 등

이달의 PD상·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부문	작품명
이달의 PD상	TV 시사·다큐	<거리의 만찬> 남진현, 박상욱, 이승문 PD, 이주희, 최현경, 이창희 작가
	TV 예능·드라마	뮤직드라마 <투 제니> 박진우 PD, 김경호, 백우정, 정연진 감독, 이정화 작가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뉴스	<부영그룹의 무주공화국 고발> 이화진 기자



<천상의 컬렉션>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이름 올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재를 감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큰 화제를 모았던 KBS <천상의 컬렉션>. 방송을 넘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는 등 한국 교양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천상의 컬렉션>이 책으로 만들어져 아시아 최대 도서전으로 꼽히는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참가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의 맛’이라는 특별전을 열고 한국을 대표하는 책 40권을 선정해 소개했다. ‘한국 맛이 넘치는 이야기’, ‘한국의 맛이 담긴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삶과 문화’, ‘한국 여행’,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국 맛이 배인 생각들’ 등 총 6가지 소주제로 나눠 전시된 ‘한국의 맛’ 특별전에는 중국의 독자와 출판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책 ‘천상의 컬렉션’은 백자 달항아리와 금동반가사유상처럼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감탄하는 우리 보물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예술의 걸작 25점을 엄선하고 전문 학예사의 감수와 연구자료와 고증을 통해 만들어졌다. 전체 200여 장에 달하는 유물 이미지를 4K UHD 초고해상도로 촬영해 그 아름다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베이징 국제도서전은 89개국에서 2천 511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볼로냐 아동도서전, 런던도서전과 함께 세계 4대 도서전으로 꼽힌다.



KBS2TV 아침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

하희라·안선영·고은미 마흔 다섯 소녀들의 로맨스

‘막장’ 아침드라마는 가라!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세 명의 40대 주부들이 나타났다! KBS 2TV 새 아침 일일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남들도 부러워할만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신기루 속에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차진옥(하희라 분), 오달숙(안선영 분), 남미래(고은미 분) 고교동창 3인방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다. 25년 전 자신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차달래 부인’이라는 밴드를 결성했던 용감한 여고동창생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중년의 위기.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 여자의 우정과 희망이 펼쳐진다. 이제는 거칠 것 없는 그녀들이 다시 뭉쳐 펼치는 이야기는 때론 눈물 나게 감동적으로, 때로는 배꼽 잡는 웃음을 선사하며 주 시청층인 주부들이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아침의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밖에서는 신사, 집에서는 가부장남인 12살 연상남편을 받들어 모시는 ‘내조의 여왕’ 차진옥, 궁합차이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커플이지만 속궁합은 맞춰볼 일이 1도 없는 ‘생과부’ 오달숙, 뮤지컬 배우로 럭셔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건어물녀’ 남미래. 아울러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베테

랑 연기자 김승수, 김형범, 정욱이 그녀들의 남편으로 가세해 코끝 찡한 감동과 재미를 한층 더 할 예정이다.

7년 만에 부활한 2TV 아침 일일드라마

KBS가 7년 만에 아침드라마를 부활시키며 9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아침드라마의 단골메뉴인 불륜·복수·재벌 등 자극적인 막장요소를 모두 뺐다. 남편의 실직, 자녀와의 갈등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통쾌함을 주는 기분 좋은 웰 메이드 드라마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학교 2>, <하늘만큼 땅만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연출한 고영탁 PD와 <올리나 부부>등을 집필한 최순식 작가가 의기투합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평범한 아줌마들의 삶과 사랑,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 시청자인 주부들의 공감을 얻고 대리만족과 감동을 전달 할 예정이다.

▶매주 월~금요일 아침 9시, 2TV